

대통령실 참모 총선 출마 러시... 연휴 직후 본격화할 듯

행정관·비서관급 30여명 이상... 낙하산식 공천 가능성은 일축 추경호·원희룡·박민식 장관 출마 유력... 내년초 중폭 개각 전망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들에 대한 총선 출마 일괄 승진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취임 후 일괄 승진은 한 번도 없었다"며 "총선이 다가온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하던 대로 인사 수요에 따라 교체가 필요하면 교체할, 승진이 필요하면 승진을 검토하는 수시 개편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다.

속칭 '늘공' (직업 공무원)을 중심으로 일부 실무

진 사이에서 불멘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통령실 근무 경력의 '특진'의 총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낙하산식 공천 가능성도 일축하는 기류다.

윤 대통령이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를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산발 전략공천 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야당 지역구 탈환을 위한 험지 진출이면 몰라도 참모들이 '윤심' (윤 대통령 의중)을 등에 업고 대

구·경북(TK) 등에 경선 없이 진출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미 지난 6월 21일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윤산이 오더(주문)해서 낙점할 일은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다른 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윤산에서 어느 순간 특정 참모를 찍어 어디 출마하라고 하는 지시하는 식의 일은 생각하기 어렵다"며 "전략공천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기류와 무관하게 대통령실 참모들의 총선 출마 러시는 추석 연휴 직후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단 행정관급 실무진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앞서 이동성, 이승환, 최지우 행정관이 사직했고, 김인규 행정관이 곧 용산을 떠난다.

아울러 김대남, 김보현, 김성용, 김유진, 배철순, 여명, 이병훈, 이장진, 허정희(가나다 순) 행정관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힌다. 김기홍 부대변인의 차출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실은 후임자들에게 대한 사전 인사 검증을 염두에 두고 내부 조사를 실시했으며, 30명 안팎의 행정관들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급에서는 이진복 정무·강승규 시민사회·김은혜 홍보수석 등이 차출될 가능성이 크다.

비서관급에서는 주진우 법률·강명구 국정기획·강훈 국정홍보·전희경 정부1·서승우 자치행정·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휴 직후 조금씩

시작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는 이달 말에는 출사표가 줄을 이을 것"이라며 "각자 시간표에 맞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한편, 정치인 출신 장관들의 당 복귀와 맞물릴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초에는 대통령실 개편과 중폭 개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수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가 유력해 보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총선 출마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개천절 경축 만세삼창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개천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힘, 내일 김행 인사청문회 불참 '가닥'

여가부 장관 후보... 민주당 일정 단독 의결 이유

국민의힘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수석 위위를 앞세워 청문회 일정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점을 들어서이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정도 단독으로, 증인도 단독으로 의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거의 막 가자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청문회 일정 단독 의결을 비판했다.

이날 여당 간사인 정경희 의원이 회의에서 "일방적이고 위법적으로 의결된 청문회는 결코 임할 수 없다"며 "민주당의 위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여가위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 오는 5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

결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추석 연휴 전에, 민주당은 연휴 이후에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각각 주장하다가 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은 6일 개최로 입장을 바꿨다.

그러나 민주당이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겹친다는 이유로 5일 개최를 거부하다가, 5일과 6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자고 하더니, 느닷없이 5일로 일방적으로 의결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굳이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여성가족위원회 차원에서 정상적인 청문회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여 "민주, 정쟁만 집중"...야 "尹 정부, 애민정신 없어"

개천절 민생 놓고 공방

여야는 개천절인 3일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가르침처럼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다가온다"며 "추석 민심에서 보여준 뜻 또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살피라는 명령이었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앞에 놓인 각종 현안에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하는 것으로도 모자랄 시간에 '제1야당은 오로지 당 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과 이를 위한 '정쟁'에만 모든 당력을 집중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오직 민생', 오직 '국민'을 최우선으로, 후보천리(牛步千里)의 자세로 비정상의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바로 잡기 위해 힘 없이 달려왔다"며 "국회에 산적해 있는 민생법안 처리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 민족 역사의 출발에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담겨 있다"며 "오늘 말로 바꾸면 애민정신이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애민정신은 없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힘겨워하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상저하고(上低下高)만 외치며 국민의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홍익인간의 정신을 실천하지는 못할망정 국민 고통에 눈감은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겠다"며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민생현장에서 국민과 아픔을 함께 나누겠다"고 약속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한중 축구 중응원 91%" 여론 왜곡 우려 타당

대통령실 브리핑... 이재명 영수회담 제안 입장엔 "드릴 말씀 없다"

대통령실은 3일 포털 '다음'의 황재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을 두고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황재우 아시안게임 축구 한국과 중국의 8강전 당시 다음 응원 페이지에서는 중국팀을 클릭응원한 비율이 전체의 91%에 달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서 여론이 왜곡되는 상황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우려에 타당성이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연휴 기간 공항 화물터미널·지구대·소방서·전방 부대 등을 찾은 데 이어 민생 행보를 유지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이도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앞으로도 수출과 투자를 비롯한 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외교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할 계획"이라며 "연말까지 수출이 살아나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지원은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투자와 관련해 "기업의 대외 투자보다는 외국 정부와 기업의 대(對)한국 투자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사우디아라비아의 40조원 투자 약속, 아랍에미리트(UAE)의 3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약속에 대해서는 "투자 규모는 결정됐지만 구체적 투자 프로젝트 확정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 안에 두 나라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확정을 위한 후속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면서 질 좋은 일자리 창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